

하박국 강해 (3)

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 (하박국 1:2~11)

장봉문 목사

☞ 하박국 강해 3

☐ 하박국서의 구조

- ▶ 1:1 서론
- ▶ 1:2~4 선지자의 첫번째 질문(탄식)
 - 1:5~11 첫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
- ▶ 1:12~2:1 선지자의 두번째 질문(탄식)
 - 2:2~4 두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
- ▶ 2:5~20 다섯가지 화의 선포
- ▶ 3:1~19 하박국의 기도(노래)

☐ 선지자의 두번째 질문이 함의하는 기본적 맥락

- 하나님의 첫번째 대답을 기반으로 함
-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의 공통점 : "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"
- 첫번째 질문)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
- 첫번째 대답)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힘과 폭력을 정의로 삼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!

Q. 하나님의 첫번째 대답이 선지자의 두번째 탄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무엇인가?

1:13 "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**악인**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"

▶ 13절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인가? → 바벨론 사람

즉, 선지자가 규정하는 악인이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**전환**되고 있다.

Q. 선지자가 하나님의 첫번째 대답을 듣고서,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고 더 탄식하는 이유는?

-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사람이 더 큰 폭력을 자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?
- 사실상 폭력의 주제만 달라질 뿐, 폭력의 범위와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짐, 따라서 하나님의 대답은 "폭력의 확장"

☐ 폭력이 확장된 결과

1:14 "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**바다의 고기**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**벌레** 같게 하시나이까"

▶ "다스리는 자"

→ 창 1:28 하나님이...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...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

→ 원래는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, 이제 바벨론의 폭력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 (**창조질서의 파괴**)

1:15 ~ 17

"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**그물**로 잡으며 **투망**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**그물**에 제사하며 **투망**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**소득**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**무자비하게**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"

▶ 바벨론의 신 "마르둑" → 그물로 상징되는 신

▶ "그물"과 "투망"이 의미하는 바는?

→ 바벨론이 힘과 폭력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 : 그물과 투망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풍요를 향한 끝없는 갈망

→ 이스라엘의 현실: 물질적 풍요를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"**무자비한 폭력**"을 행사하는 바벨론과 마주하고 있음

☞ 생각해볼 문제

오늘날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?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?

욕망의 대처는 "감사, 자족"하는 마음

☐ 하나님의 두번째 대답

2:3 이 **목시**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**종말**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**기다리라** 지체 되지 않고 반드시 **응하리라**

▶ "목시" → 하나님의 말씀

▶ 구약적 "**종말**"의 의미 → 시간 혹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,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(성취되는) 시간

▶ 3절의 핵심

☞ 바벨론이 더 큰 악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/ 하나님의 말씀(정의와 공의)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, 비록 더디게 보이더라도, 그 말씀(정의와 공의)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응할 것을 확신하고 **기다리라**는 의미

Q. 기다리라?

→ 손 놓고 있어도 된다? **No!** 세상이 불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정의가 굶어져도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신뢰하며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! 즉, 하나님 나라의 **현재성**을 인식하는게 중요!

☞ 생각해볼 질문

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방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?

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

2: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**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**

▶ 의인의 특징

→ 악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도,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(공의)를 맺음

→ 세상의 악함과 폭력, 힘의 원리, 욕망의 원리가 작동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

☐ 로마서와 구분되는 점

로마서: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맥락

하박국: 불의한 시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삶의 맥락

Q. 우리는 너무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?

→ "담장을 넘는 교회" 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방향

→ 진정한 종말의 삶이란?